**일병목회강좌 사무엘서 2강**

정리 : 최희영목사

**1. 성경의 어법(Idiom)**

-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은, 주요 단어들 | 거룩, 영광, 믿음, 은혜 등 | 이 세상에 있는 개념들이라는 사실이다.

• 성경이 문맥에 의해서, 전후 사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의 개념으로 | 성경식의 이해를 가지고 | 그 단어를 정의했어야 했는데,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치환시킴으로써 전후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.

-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고,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다윗을 등장시켰다.

•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표현은 그가 만든 결과가 세상적 인간적 뿌리와 조건과 연속성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. 과감히 세상과의 고리를 끊은 배워야 할 덕목으로 해석하고 만다.

• 다윗은 왕권의 영원성을 약속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지, 그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다.

- 아브라함, 모세,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고 영웅을 부러워하거나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셈이다.

**2. 믿음 (롬4:1-8)**

**① 은혜 더하기(+)**

- 구원은 우리의 죄를 은혜로 씻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| 하나님다우심을 | 드러낸 사건이다.

-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은 ‘조건 없는 결과의 법칙’으로 얻었다는 뜻이다.

- 믿음은 하나님이 만든, 우리가 아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방법이라는 뜻이다.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은혜를 끌어들인다. 은혜란 조건과 자격과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.

- 은혜를 주신 이유가 책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, 은혜라는 말로 일관되게 쓰지 않고 믿음이라는 말을 만들었다.

-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조건과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,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결과된 것이 | 값없이 주어진다는 데에 머물지 않고 |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결과시킨 데까지 끌고 간다는 점을 설명한다.

**② 붙잡힘**

- 시작하는 믿음과 결과되는 믿음의 간격과 | 그리고 그 사이의 | 자라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라.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,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심이다.

• 존재가 의식에 우선한다. 창조가 먼저이다. 감각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은 나중에 온다.

• 한 인격의 경험과 여러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한 사람이 완성되어 나간다.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실제로 걸어감으로 시간과 조건과 도전과 이해와 반발까지 포함한 모든 것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한 존재이다.

-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|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잡혔으매 |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. (3절)

**③ 성육신에 동참**

-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운명이 결정된 자들이다. 그런데 살아보게 하는 것이다.

• 믿음이 결과나 운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만들기 위해 믿음이 주어져, 성육신에서 보이는 것처럼 |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부터 33세까지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서 그 일을 이루어 결과를 만든 것 같이 |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, 역사적 배경 속에서, 그 민족의 형편 속에서 자기 길을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다.

**3. 다윗과 사울 (삼상15:17-23)**

**①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**

-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는 통로이다.

•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(순종)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(제사)보다 낫다.

- 사울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, 하나님이 준비하고 목적한 것을 받을 마음은 없다.

• 사울은 왕이 하나의 권력이고, 하나의 성공이며, 지위이고, 최선인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.

• 사울은 순종하지 않는 자, 즉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이다.

• 자기가 생산하는 것이 전부인 자다. 그러자 그의 권력은 폭력이 되었고, 시기와 보복 뿐이다.

- 생명이 없는 것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마르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는다. 생명이 있는 것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자라고,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란다.

**② 다윗 (삼상17:41-49)**

-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담기는 인생을 보여준다. 그러나 그는 맨 밑의 그물이 되어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붙들어주는 자로 서있지, 저 높이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정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는 은혜의 대표이다.

- 순도와 열도를 확인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직접 살아보라. 제일 큰 실패는 외면하는 것이다. 자기 인생과 자기 그 때의 형편을 외면하지 말라.

-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망한다. 사울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폭력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. 다윗은 그렇지 않다. 그러나 다만 사울과 대조가 될 뿐이지 이것이 궁극적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밧세바 사건으로 선언한다.

- 골리앗 사건에 머물지 말고, 밧세바 사건을 지나 성경이 다윗을 통해 주는 유익을 누리라.

[질의응답]

- 밧세바 사건 전의 다윗은 어떻게 가르치나.

▶ 주일학교에서는 골리앗 물리친 다윗을 가르쳐서 1차 개념 |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| 을 배우게 하라.

-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

▶ 좋은 글들을 읽으라. 로완 윌리암스의 저서들이 올바른 개념들을 설명한다. 결국 기독교에만 답이 있다.

- 아브라함의 믿음

▶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자라나가는 흔적을 볼 수 있다. 믿음의 두 측면,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의 반응 가운데 어느 쪽을 강조하는 가는 자기 위치에 따라 보게 되며 괜찮다.

-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

▶ 각자의 정황에 따라 달라 관심도 다르다. 성경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시급하다.